

선택 6·4

이런 후보가 좋아요



광주·전남 유권자 30명에 듣는다

지역민 소소한 민원 듣는 후보

강성두(변호사·45)=내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의 공약이 지나치게 크다. 저마다 경제 전문가를 표방하는가 하면, '전문가'다운 거창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지 않은가. 지역민들의 소소한 민원을 귀담아 듣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민 말착형 후보, 지역민들의 실생활에 관심을 갖고 구청 현안을 챙기는 후보를 찾겠다.



친환경 수산정책 제시해야

김양진(장흥 무산김(주) 대표·57)=이번 선거에서 정직하고 투명하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후보가 뽑혀야 한다. 유권자에게 낮은 자세로 임하는 선량하고 현명한 사람, 근시안적 안목을 갖지 않고 백년대계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무엇보다 친환경(유기) 수산정책과 대안을 마련해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친환경 해조류를 생산하는 어민들의 생산의욕을 높여주는 후보를 지지하고 싶다.



생색내기 재개발·재건축 그만

이선희(회사원·여·37)=내가 바라는 시장은 일상의 질을 높여주고, 시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시장,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복지에 관심을 두는 시장이다. 전 국민을 충격과 상처로 내몰았던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안전하고, 보호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색내기 재개발, 재건축, 거창한 행사유치가 아니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원리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을 바란다.



사회적 약자 보듬어줄 사람

김병만(서강고 교감·59)=먼저 청렴한 공직자여야 한다. 다산 정약옹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목민관의 기본 임무요, 모든 선(善)의 근원'이라 했다. 둘째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후보, 셋째는 청소년 문제에 적극 관심을 갖고 교육 예산 확대에 신경쓰는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 유권자들은 누가 적합한 사람인지 고민해서 제대로 선택했으면 좋겠다.



사람 중심의 정책 펼칠 리더

정운학(2014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감독·49)=문화 광주의 성공은 미술인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바람이다. 광주는 비엔날레 20주년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에 가득 채워질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관심, 문화도시의 내용적 모습과 큰 틀에서의 정책 지원도 필요하지만 작은 하부구조에 대한 정책도 소외되지 않는 된다. 사람 중심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리더가 뽑혔으면 좋겠다.



광주시장 2강 후보 유세현장 동행취재

윤장현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1일 오후 광주 북구 중흥2동 경로당을 찾아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와 함께 어르신들에게 큰절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강운태

지난 31일 오후 무소속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와 이용섭 상임선대본부장이 광주 동구 충장로에서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며 큰절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야구장 찾아 퇴약별 속 일일이 악수

"안녕하세요. 시민시장 후보 윤장현입니다. 광주를 한번 바꾸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31일 오후 4시30분 기아챔피언스필드 경기장 앞에 등장한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는 퇴약별 속에서 경기장을 찾은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느라 정신이 없었다.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부친 윤 후보는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려고 빠르게 발걸음을 재촉했다. 경기장 안팎을 드나들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윤 후보는 곧바로 차량에 탑승해 집중유세를 위해 풍암지구 호수공원으로 향했다.

주말 밤 풍암지구 호수공원은 인근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따라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위 탓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 공원을 찾은 시민들로 붐볐다.

윤 후보는 몇몇 수행원들과 함께 빠르게 이동하며 "광주를 바꿀 수 있는 윤장현을 선택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고,

새벽부터 저녁 9시까지 게릴라식 저인망 유세활동 유세 중간 소규모 간담회

유세차량에서는 연설원들이 윤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윤 후보는 이날 새벽 광주 서구 양동 가로미화원복지센터를 방문, 환경 미화원을 격려한 뒤 양동시장과 남광주 시장을 잇따라 둘러 상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뒤 오전 9시 무등산 중심사 입구에서 등산객을 상대로 집중 유세를 펼쳤다.

이어 염주체육관 내 카페에서 전남대·조선대학교 취업준비생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평동공단으로 이동해 광주 태권도 협회의 체육대회에 참석했다.

오후에는 북구 우치공원과 기아챔피언스필드 경기장, 풍암지구 호수공원, 남구 노대동 호수공원에서 집중유세를 펼쳤다. 이날 새벽 5시30분에 시작된 윤 후보의 하루 외부 일정은 밤 9시 남구 노대동

호수공원에서 모두 마무리됐다. 퇴약별 속에 차량 이용과 도보로만 16시간 동안 강행군을 펼친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외부 일정을 마친 뒤 다음날 오전에 열릴 방송사 토론회 준비를 위해 선거사무실로 향했다.

윤 후보는 "시민들과 악수를 하면서 손을 만져보면 아는데, 대부분이 따뜻하게 격려해줬다"면서 "승리를 자신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선거가 막바지로 다가오면서 게릴라식 저인망 유세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 아직까지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을 끌어안고 바닥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다.

특히 공식 일정 이외에도 시간만 허락되면 젊은 층과 여성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소규모 간담회를 자주 준비하고 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선거 초반에는 전략공천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은 전략공천에 대한 불가피성에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충장로 입구 맨땅 옆드려 큰절 호소

지난 31일 밤 8시에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광장. 무소속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가 노란색 점퍼 차림으로 유세차 옆에 등장했다.

강 후보는 오전 7시 선거대책회의를 시작으로 무등산 입구 인사→충장로 유세→기아챔피언스 야구장 방문→첨단LC타워 집중유세 등까지 숨가쁜 일정을 소화한 후 오후 8시 30분 차를 타는 모습이었다.

강 후보에게 이날은 매우 중요한 날이었다. 1일 경쟁상대인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 지원을 위해 안철수 대표가 광주에 온다고 알려지면서 비상이 걸린 것. 이에 '안철수 바람' 차단을 위해 전날부터 시작한 촛불유세를 이날도 계속하기로 했다.

특히 이에 앞선 오후 3시 충장로 1가 입구 유세에서 시민에게 신발을 벗고 맨땅에 엎드려 '큰절'을 했다. 이용섭 상임선대본부장과 함께 한 '큰절'은 "큰 머슴, 상머슴으로서 시민을 부모형제처럼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이라는 비장한 다짐과 함께 "150만 시민이 강운태와 이용섭을 살려 달라"는 호소의 의미를 담았다.

무등산~충장로~야구장 하루 종일 숨가쁜 일정 저녁엔 이틀째 촛불유세

강 후보는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광주가 헤아날 수 없는 변방의 소도시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큰 빛으로 찬란히 빛나는 정치중심지로 나아가갈 것인지를 갈림길에 놓여 있다"며 "위기에 처한 광주를 시민이 구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유스퀘어 광장에서 지지자들과 열주 인사를 나누는 강 후보는 2~3명의 수행원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시민에게 인사하며 "광주의 자존심을 살려주세요"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강 후보는 30여분 인사 후 시민·지지자 1000여명이 모여있는 촛불유세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엄숙한 분위기에서 강 후보의 맏며느리가 나섰다. 그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

리, 이용섭 의원과 새정치연합의 한가운 데로 들어가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기호 5번 강운태를 지켜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용섭 선대위원장은 "강 후보를 당선시키면 안철수·김한길 두 사람은 물러가고 개혁지도부가 들어서서 광주는 정권교체의 주역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의 연설에 시민들은 "이용섭"을 연호했다.

마지막으로 강 후보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안철수·김한길은 광주를 호주머니의 물건처럼 여긴다. 광주를 모욕하고 배반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기호 5번은 이용섭·강운태의 변호이자 광주시민 여러분의 변호"라며 "제가 압도적 표차로 당선될 때 안철수·김한길이를 물러내고 이용섭 동지와 새정치민주연합이 산다.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 정권 창출이 가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의 차분하면서도 논리정연한 연설에 지지자들은 "울소" "강운태" 등을 연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HNT 하나투어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충장점 OPEN EVENT!

평생 잊지 못할 허니문 여행! 이제는 가까운 하나투어 프리미엄 로드샵에서 알차게 준비하세요!

방문 EVENT!

- !!! 푸르드 카페 무료 음료권 증정
- !!! 여행용 트래블 팩 증정

예약 EVENT!

- !!! 생당 최대 하나투어 50만 마일리지 적립
- !!! 생당 10만원 상품권 제공
- !!! 지역별 다양한 특전 및 추가 할인 제공
- !!! 필립스 전기 포트 제공
- !!! 영화 예매권 제공

6월 30일까지 이벤트 제공!

HNT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 충장점 전 화 | 062) 228-1199 주 소 | 광주 동구 불로동 96-7번지